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

김동윤*

1. 머리말
2. 1950년대 신문의 위상과 상업적 성격
3. 신문사의 신문소설 전략
4. 작가들의 신문소설 집필 태도
5. 영화와의 교섭을 통해서 본 신문소설의 위상
6. 맺음말

국문요약

1950년대 신문소설의 경우 신문의 상업주의 경향과 작가들의 대응, 영화와의 교섭 등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1950년대는 신문매체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업주의를 노골화한 시기였는데, 신문사에서는 신문소설을 통해 신문판매고를 신장시키기 위해 인기작가의 유치, 연재예고와 같은 광고기사의 적극적 활용, 비인기 소설의 퇴출(연재중단) 등의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작가들은 신문사의 상업주의와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대개의 경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노골적으로 소설이 게재되는 신문을 홍보하기도 하였고, 관능성·감상성·야만성 등의 통속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신문소설이 한국영화와의 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뤄간 1950년에서 특히 인기가 높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있던 멜로드라마는 신문소설을 원천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신문소설이 한국영화의 대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이처럼 1950년대의 신문소설은 상업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누렸고, 영화 등의 대중예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1950년대 신문소설이야말로 당시 세태를 잘 반영한 사회소설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학사 혹은 예술사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은 펴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1950년대, 신문소설, 상업주의, 연재예고, 작가, 영화와의 교섭

1. 머리말

“문학은 매체(media)에 의존하여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양식”¹⁾이다. 그리고 “매체는 그 자체가 문화의 일부이면서, 당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²⁾ 구비문학인가 기록문학인가 하는 구분에서부터 우리는 매체와 관련하여 문학을 고찰하고 있다. 방각본으로 나온 소설을 대중소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³⁾도 매체와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매체가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소설이 문학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설 출판이라는 매우 특수한 경제적 구조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⁴⁾는 점을

1) 김재국, 『사이버문학』, 임성래 외 6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266쪽.

2)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 소설』, 『현대소설연구』29, 현대소설학회, 2006, 25쪽.

3) 방각본소설을 대중소설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임성래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태학사, 1995)과 『완판 영웅소설의 대중성』(소명출판, 2007)을 들 수 있다.

유의할 때 신문소설에서 매체와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신문이야말로 근대의 성립과 더불어 출연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한 대중매체요, 신문소설 또한 근대문학의 많은 부분을 주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문소설의 위력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삼총사」 등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초반 이광수의 「무정」 등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다.

이 글은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신문소설이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소설의 위상은 신문매체의 기반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이는 텍스트를 분석할 때 텍스트 자체에만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환원론에 빠질 수 있으므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돋보이는 하나의 원인은 물론 주변의 간접적인 원인들까지 동시에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지적과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950년대 신문의 성격이나 대중문화의 흐름과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당대 연재소설의 예술사적·문학사적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학사회학적인 논의는 텍스트 주변의 조건들과 늘 긴장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대중문화에 관한 탐색에서는 특히 유용성을 갖는다고 본다.

2. 1950년대 신문의 위상과 상업적 성격

‘신문의 연대(年代)’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50년대에 들어서

4) 레이몬드 윌리엄스, 박만준 역, 『문학과 문화이론』, 경문사, 2003, 198쪽.

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이는 우선 식자층의 급증에 따른 독자층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50년대는 학교 학생수, 교원수, 취학을 등에 급격한 신장을 보인 시기였다. 취학률의 경우 1940년도에 31.75%였으나 1945년도에는 64%, 1950년 전쟁 직전에는 81.8%로 급증했으며, 전쟁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1954년에는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60년에는 95.3%에 이르렀다.⁵⁾ 결국 1950년대에는 해방 직후 어떤 정책보다도 선행해서 이루어진 의무교육 제도의 보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의 영향으로 식자층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히 신문의 독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신문들의 지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점 또한 신문 소설 독자층의 확충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각 신문의 증면은 대체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55년 1월에 각 신문들은 2면에서 4면으로 증면되었고, 1958년 후반에는 6면으로 증면되었다. 1959년 전반기에 이르러서는 주요 신문기업들은 조·석간 8면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⁷⁾

1950년대의 경우 일간신문은 지방지를 포함하여 40여 개 수준을 유지했다.⁸⁾ 전쟁 이후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주요 신문의 발행부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신문발행 상황은 악화된 것이 아니었다. 이 가운데 유력한 중앙일간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

5) 최정호 외 2인, 『메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1990, 138-139쪽.

6)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139쪽.

7)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104~106쪽.

8) 1950년대 신문 종수(출처: 공보부, 『공보백서』, 1962, 75쪽); 김영희, 「제1공화국 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 309쪽에서 재인용.

보』 등 5개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대구에서 간행된 『매일신문』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쳤다고 본다.

1950년대 신문의 연간 총 발행부수는 대략 50만 부에서 80만 부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당시의 가구당 보급률을 살펴보면 13.15%에서 18.34% 정도이고, 인구 100명당 2.3부에서 3.2부 수준으로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개발도상국의 최저 보급기준인 인구 100명당 10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⁹⁾ 하지만 당시에는 독자의 수가 발행부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의 하나는 신문사 게시판에 붙여놓은 그 날 신문을 읽으려고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거나 “시골에 가 보면 어느 신문이 몇 년 전에 어떤 걸 썼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문에 글 난 것을 오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신문발행부수가 아직 100만 부가 못 되는 것같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장 가지고 몇 사람씩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라는 등의 언급들¹⁰⁾은 그것을 확인해 준다. 신문발행부수가 독자 수보다 오히려 많은 근래의 경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연도	일간신문	일간통신	주간신문	월간	기타	합계
1950	44	12	66	65	12	199
1952	49	15	106	155	42	367
1953	49	16	123	167	44	399
1954	48	16	127	218	53	462
1955	45	15	146	260	57	523
1956	43	14	119	252	63	476
1957	42	14	108	264	79	507
1958	42	14	100	301	94	551
1959	41	14	105	352	103	615

9) 김영희, 위의 논문, 311쪽.

10) 로버트 올리버, 김봉호 옮김, 『한국동란사』, 문교부, 1959, 205쪽; 『동아일보』 1957. 10. 24. 김영희, 위의 글, 311쪽에서 재인용.

또한 독자의 대도시 편중은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는 농어촌에서 대중매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1958년도 농촌의 매 체 접촉 상황을 보면 조사대상 가구 609호 가운데 일간지 구독 103호 (16.8%), 잡지구독 146호(24%), 라디오 소유 25호(4.1%) 등으로 나타났 다. 특히 신문의 경우 주간지를 구독하는 6호까지 합쳐 109호인 반면, 불구독인 경우 503호(83%)에 달했다.¹¹⁾ 당시는 농촌인구가 더 많았던 점에 미루어 볼 때, 농촌가구의 83%가 신문을 전혀 구독하지 않았음은 신문의 수용자들이 대부분 도시민임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우리는 대중매체 접촉에 열악한 농촌의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 신문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외 소식의 청취’인 경우 라디오 5%, 잡지 9%인 데 비해 신문은 21%가 된다는 사실을 보면, 영향력 면에서 신문이 다른 대중매체를 훨씬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11) 1958년 농촌의 매체 접촉 상황. 김영희, 위의 글, 324쪽.

		호수(609)	%
신문구독	불구독	503	83
	일간지	103	
	주간지	6	
잡지구독	불구독	453	74
	구독	146(?)	
라디오 소유	미소유	584	96
	1대 소유	25	
국내외 소식의 청취	듣지 못한다	54	9
	신문	126	21
	라디오	28	5
	잡지	57	9
	타인으로부터	344	56

12) 라디오는 1957년 1월 현재 인구 100명당 0.7대에서 1960년 1.5대 정도이고, 영화 관람석은 인구 100명당 1959년 0.65석에서 1960년 0.7석이였다. 김영희, 위의 글, 323쪽.

12 대중서사연구 제17호

그런데 이 시기 신문사의 운영은 오늘날과는 달리 광고수입보다는 신문판매수입의 비중이 훨씬 높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1등 신문’이었던 『동아일보』만 하더라도 (...) 1959년에 18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제법 장사를 잘하고 있었지만, 광고수입이 30% 전후로 신문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¹³⁾는 것이다. 신문판매량에 따라 그 운영이 좌우되는 형편이었으니 신문판매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신문사가 골몰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는 한국 언론기관에 상업주의가 비롯된 시기이자 사기업으로서의 언론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로 규정된다. 그 중심에는 물론 신문사가 있었다.

韓國言論機關에 商業主義가 비롯된 時期는 1950年代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에는 電波媒體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商業主義가 움트기 시작했다. 또한 1950年代는 韓國動亂의 종결과 함께 韓國社會의 構造的 轉換期이며 동시에 西歐文化가 도입된 시기로, 近代化와 西歐化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커지고 都市의 人口集中으로 말미암아 大衆社會, 大量生産이 움튼 시기였다. 이 때에 創刊된 新聞들은 政治志向性을 탈피하고 신변잡기와 퀴즈 등으로 채워진 일요판과 부록 등 서비스 페이지를 중심으로 傳統 있는 신문을 누르고 경이적인 發行部數를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타 新聞들도 大衆의 기호에 알맞은 방향으로 편집을 전환해 나갔다. 이와 같이 商業主義 傾向은 言論史的인 側面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었으며 企業과 編輯의 양면에서 現代的인 體質

13)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367~368쪽. 신문의 광고수입 의존도는 1950년대까지 20~30%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 50%를 넘어선 데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미디어 오늘』, 1996년 9월 4일.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368쪽에서 재인용.

改善을 이룬 것이다. 1950年代는 私企業으로서의 言論機關의 성격
을 분명히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였다.¹⁴⁾

이러한 지적은 사회 구조적인 변동과 관련하여 신문매체의 상업주의
와 신문사의 사기업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를 ‘대중사회가 움
튼 시기’로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시
창간된 신문은 『한국일보』로, 『한국일보』 창간은 “50년대 한국 상업주
의신문의 대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¹⁵⁾이었다. 『한국일보』는 창
간사에서 노골적으로 상업신문을 표명하고 있다.

신문의 독자성은 신문 경영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신문의 질적 향상이란 또한 기업활동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우리는 근대 경제학 이론을 신봉하고
새로운 자유경쟁 사회의 옹호를 자각(自覺)하면서 ‘리얼리즘’에 입각
한 상업신문의 길을 개척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⁶⁾

이렇게 신문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도시민들 중심의 독자층이 형성
되었다는 점, 신문판매수입에 신문사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상업주의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는 점 등은 신문소설의 환경과 관련하
여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독자들이 도시민 중심이었다는 점은 당시
신문소설에서 대도시의 세태가 주로 그려진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14) 원우현, 「한국언론제도의 구조에 관한 서술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14호, 한국언론학회, 1981, 92쪽.

15) 이상우, 「언론 운영의 상업주의」,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119쪽.

16) 강준만, 앞의 책, 344쪽에서 재인용. 여기서의 밑줄은 인용자의 것이며, 이하 마찬가지임.

것이고,¹⁷⁾ 신문판매수입에 의존한 점은 신문소설의 구독자확보 여부에 좌우되는 운명이었음을 보여준다. 신문사에서 신문소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노골적으로 모색해 나간 것은 당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3. 신문사의 신문소설 전략

신문사의 신문판매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던 시기에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비석은 “『자유부인』을 연재하는 동안에는 『서울신문』의 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연재가 종결됨과 동시에 5만 2천부 이상이 일시에 격감되었다”¹⁸⁾고 언급한 바 있는데, 1954년 『서울신문』 발행부수가 6만 3천부였음¹⁹⁾을 감안하면 엄청난 영향력이었다. 이는 신문의 상업주의를 본격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自由夫人』의 놀라운 대중적 반향을 접한 이후 신문의 經營主軸은 새삼 신문소설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기왕의 연재소설을 심분 활용해 販賣高를 올려보자는 계산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제 신문사측은 아예 신문연재소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自社 발행 신문의 販賣高 신장이라는 등식을 내세우게 되었”²⁰⁾던 것이다. 신문사 측의 신문소설을 통한 ‘신문의 판매고 신장’ 전략은 판매수입이

17)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에서는 1950년대 신문소설 34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보면 당시 신문소설이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세태를 그려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작가의 말」, 『자유부인』1, 고려원, 1996, 8쪽. 여기서 5만 2천부가 격감되었다는 말은 과장된 것 같다.

19) 최영석, 앞의 글, 41쪽.

20)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7쪽.

절대적이었던 당시로서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1957년에 있었던 「문학과 신문문화면」이라는 좌담회는 신문소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현구의 사회로 진행된 이 좌담회에는 이회승·정인섭·김이석·이무영·안수길·모운숙·이인석·주요섭·이하윤·송지영·김용호가 참석하였다. 당시 신문을 ‘상업신문’으로 규정한 송지영²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一部 官能的이라 하는 것은 新聞發行者에게 責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新聞小說이 讀者에게 주는 影響이라는 것은 新聞 發行 數에 비해 볼 때에 論說의 位置보다도 重要한 것입니다. 新聞小說이 官能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讀者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發行人이 新聞을 많이 팔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新聞 本來의 使命이 어데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發行人이 助長하는 傾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²²⁾

신문발행인이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 관능적인 소설을 써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다. 송지영은 독자의 수가 신문소설이 재미없다고 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가 아니냐는 정인섭의 질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영향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 좌담회에서 안수길은 “新聞小說이라는 것이 結局 文化部에 所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販賣部에 所屬되어 있어 가지고, 販賣部가 讀者에게서 어떤 輿論이나 統計를 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小說은 신다

21) 이 좌담회에서 송지영이 자꾸 ‘상업신문’이라는 말을 쓰자 이현구는 “그냥 新聞이면 新聞이지 商業新聞은……” 하고 반문하는데, 이에 송지영은 “確實히 商業新聞”이라고 못박는다. 「문학과 신문문화면」, 『자유문학』 1957. 9, 87쪽.

22) 위의 글, 91쪽.

보니까 재미가 없다고 해서 中間에서 끊는다든지 이런 짓을 한다”²³⁾고 발언한다. 신문소설이 신문판매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설은 연재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1950년대 중반 김팔봉이 『서울신문』에 역사소설 「군웅(群雄)」을 연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필을 거부당해 작가와 신문사간에 공방이 오갔던 사건은 상업성과 관련한 연재중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한 김팔봉이 『경향신문』에 「무례지극(無禮之極)」이라는 항의성 글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박계주·최정희 등 61명(직접 서명한 작가는 35명)의 작가들이 ‘작가권익옹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신문』에 연재소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의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당시에 김팔봉은 “서울신문은 소설을 게재하다가 그때마다 제 마음대로 百五十回라든가 百三十回라든가 지정해 주고서 그것으로써 완료시키어 온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와 같은 불명예 피해자는 최근 五六년간만 해도 金末峰, 李無影, 崔貞熙, 朴啓周, 李鍾桓, 廉想涉”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팔·일오 이후 우리나라의 신문업자들은 (...) ‘찌-내리즘’을 악용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 이같은 경향은 비판받아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염상섭도 「젊은 세대」 연재를 중단당한 적이 있다.

23) 위의 글, 90쪽.

24) 김팔봉, 「‘서울신문’과 집필거부와 나», 『신세계』 1957년 1월호, 139~145쪽. 이 글에서는 「군웅」이 연재를 중단케 된 경위와 그 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남일보』에 연재된 김팔봉의 「군웅」은 원래 『서울신문』(1955. 11. 20~56. 6. 23)(김기창 삼화)에 연재되었던 역사소설의 후편에 해당된다”(한명환·김일영·남금희·안미영, 「해방 이후 대구·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57쪽)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중단 이후를 적절

서울신문에서 「젊은 세대」가 중단되었던 것은, 그 부서의 일선책임자의 고의, 혹은, 自意로 단행하였던 것인지? 소위 御用紙의 성격을 남용한다기보다도 그 나래 밑에 숨어서 한 일이었든 듯이도 볼 수 있었다. 또 혹은 十常八九, 작품이 꼴같지 않아서 그러하였던지? 여하간 꼴사납게 되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도 몇 작가에게 그러한 창피를 주었다는데 그것도 무슨 ‘토리크’였는지 객기인지 상습화하였던 모양이었다. 여하간 난생 처음으로 큰 봉변을 당하였다.²⁵⁾

신문사의 조치로 ‘큰 봉변’을 당했다는 염상섭의 술회를 보면, 독자들의 인기를 못 얻을 경우에는 명성이 높은 작가도 퇴출당하던 시기가 1950년대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도 1950년대 신문의 상업주의화에 따른 과장을 적시(摘示)하고 있다.

(……) 新聞連載小說을 쓰는 데 있어서도 取材가 農村, 農民이라면 벌써 新聞社側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다. (……) 우리 주위의 그 腐敗 頹廢한 現實과 風俗, 거기서 發達한 것은 一般大衆의 低俗한 趣味 그 趣味에 迎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는 人氣小說 가운데에는, 實로 우리 文學史의 어느 新聞小說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破廉恥한 場面까지 나간 것이 많다. 여기서 農民小說을 쓴다면 설마 農村을 그리면서, 땀과 티가 나오고, 露骨的인 性慾 場面이 그려질 수 없을 것이니까, 찌널리즘에서 農民小說을 歡迎하지 않을 것은 事實이다.²⁶⁾

히 이어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25) 염상섭, 「홍보문단회상기」, 『염상섭전집』12, 민음사, 1987, 233쪽. 『서울신문』에 1955년 6월 11일부터 연재되던 「젊은 세대」는 같은 해 11월 21일 중단되었다.

26) 백철, 「농민문학을 제언—민족문학의 제재를 넓힌다?」, 『자유문학』 1956. 7, 227-228쪽.

작품의 제재나 내용에서도 독자 대중의 취향에만 영합하는 신문사의 상업주의에 작가들이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문사 측에서 연재소설을 철저히 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작가들은 그에 따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사에서는 신문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신문소설의 영향력을 익히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 작가를 연재작가로 유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일보』가 그런 의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창간 직후 염상섭을 연재소설의 필자로 끌어들였음²⁷⁾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점은 연재예고²⁸⁾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한국일보』의 새출발을 빛내기 위하여 연재 소설에 횡보 염상섭(橫步 廉想涉) 씨가 「未亡人(미망인)을 집필하기로 되어 오는 십六 일자부터 게재합니다. 염상섭씨는 이미 다 아는 우리 문단의 거장, 최근에 해군(海軍) 현역을 물러나 앞으로는 오직 문학창작에만 정열을 기울이기로 한 후 그 첫 번 작품인 만큼 반드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문제작(問題作)이 나올 것을 기대하여 의심치 않습니다.²⁹⁾

27)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323쪽. 염상섭도 “張 社長이 출사하던 길에 내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갔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염상섭, 「횡보문단회상기」, 앞의 책, 233쪽.

28) 1910년대 『매일신보』가 처음 소설 연재에 앞서 광고를 게재한 이래 ‘연재예고’는 일종의 서문 격으로 신문소설 연재의 필수 조항이었다. 신문사 편집자의 ‘소개의 말’과 ‘작자의 말’ 그리고 ‘화가의 말’로 구성된 ‘연재예고’란의 활성화는 신문소설의 흥행을 노린 전형적인 기사 광고였다고 할 수 있다. ‘연재예고’ 담론이 연재소설의 성격을 알리는 지표였던 셈이다. 따라서 연재예고 담론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당대 신문저널리즘의 문예정책의 일면과 신문소설의 미학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일이 가능하다.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11쪽.

29) 「미망인」 연재예고, 『한국일보』 1954.6.12.

해군에서 전역하여 쓰는 첫 작품이며 천의무봉의 문제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미망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염상섭은 이 소설을 연재하면서 “독자의 쾌락이나 비위를 맞추어서 여러분이 손뼉을 치며 깔깔대는 그런 재롱감의 소설을 쓰려는 생각은 없다”³⁰⁾고 말하였다. 독자에게 영합하여 흥미 위주로 작품을 전개하는 것을 배격하고 ‘참된’ 문학작품을 쓰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너무 진지한 측면에만 무게를 두다 보니 당시 세태를 잘 반영한 작품이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다. 염상섭은 독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도 거의 동원하지 않는다. 신문소설의 특징인 ‘중단기법(단절기법)’도 무시하였고, 흥미 있는 소재를 끌어들이면서도 통속성의 요소들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는다. 남녀가 춤추는 장면, 동침 장면, 열흘 동안의 동거 생활 등에서 관능성이 표출했을 법도 하지만 그것들은 상당히 건조하게 서술되었을 따름이다. 미망인 모녀가 겪는 생활고를 통해 감상성을 유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역시 밋밋하게 처리된다.³¹⁾ 똑같이 미망인들의 삶을 다룬 정비석의 신문소설 「유혹의 강」(서울신문 1958년 연재)이 개인의 성적인 갈등과 고뇌를 흥미 위주로 전개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이다.

『한국일보』는 「미망인」 연재가 독자 유인에 성공하지 못하자 곧바로 「자유부인」으로 낙양의 지가를 높인 정비석을 끌어들었다.

곧이어서 문단의 총아(寵兒) 정비석(鄭飛石) 씨의 「민주어족」(民主魚族)을 신계 되었습니다. 정비석 씨의 이번 작품에서 그 제목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민주통일의 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과 한국

30) 염상섭, 「소설과 현실」, 『한국일보』 1954.6.14.

31) 김동윤, 「진후 현실, 그리고 작가와 대중의 거리」,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리토피아, 2004, 97-101쪽 참조

민의 숨겨진 생활을 그리며 그 가운데서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의 모습을 그리려는 것이니 참으로 과거 작품에 볼 수 없었던 문제작이 아닌가 기대됩니다.³²⁾

‘문단의 총아’라는 표현을 쓰며 정비석을 추어올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2년 후 「낭만열차」 연재를 앞두고서는 “本社는 여기 또다시 鄭飛石氏에게 再次的 執筆을 仰託하였습니다.”³³⁾라면서 정비석의 명성에 의존하였다.

정비석은 195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신문소설 작가였다. 「자유부인」 연재에 앞서 이미 “우리나라 문단에서 장편소설의 인기작가(人氣作家)”³⁴⁾로 소개된 바 있는 그는 “新聞現代小說의 獨步的 存在”³⁵⁾로 칭송되었다. “이제 새삼 소개할 필요도 없이 ‘정비석’ 씨는 길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 우리나라 장편소설 작가로서는 제1인자로 손꼽히는 분으로 특히 본지에 연재했던 『자유부인』(自由夫人)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일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새롭습니다.”³⁶⁾라는 등 신문사에서는 그의 명성을 통한 독자확보 전략 마련에 힘썼다.

김말봉의 경우에는 1930년대 후반 인기작이었던 「쫄레꽃」의 작가임을 특히 부각시킨다. 대표적 여성작가라는 점, 해외에서 체류한 점 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 우리 문단의 대표적 규수작가인 동시에 문단의 중진으로서 원숙한 경지를 개척하고 있는 김말봉(金末峰) 여사의

32) 「민주어족」 연재예고, 『한국일보』 1954.12.4.
33) 「낭만열차」 연재예고, 『한국일보』 1956.4.21.
34) 「자유부인」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3.12.23.
35) 「슬픈 목가」 연재예고, 『동아일보』 1957.3.1.
36) 「유혹의 강」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8.1.24.

장편소설 「푸른 날개」를 오는 二十六일부터 연재키로 하였습니다. 작가 김말봉 여사는 지금으로부터 十七년 전 본보에 장편 「절레꽃」을 연재하여 독자여러분의 절찬을 받아 아직도 그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번 붓을 드는 「푸른 날개」는 더한층 여러분의 심금(心琴)을 울릴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³⁷⁾

말할 것도 없이 金(김말봉: 인용자 주) 女史는 「절레꽃」을 비롯하여 많은 長篇을 發表한 大家이며, 널리 海外에 놀아 現代의 良識과 새로운 思潮에 豊富한 經驗을 쌓은 女史의 圓熟한 作風이 이번 「花冠의 季節」에서 더욱 빛날 것을 疑心하지 않습니다.³⁸⁾

김내성 소개에서 「청춘극장」과 「인생화보」 등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거명되고 있다. 그리고 「에인」이 인기를 끌자, 「실낙원의 별」 연재에 앞서서는 ‘선풍적 인기를 독점’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 文壇의 重鎮 金來成 씨의 신작 장편소설 「愛人」을 連載하기로 되었습니다. 氏는 八·一五해방 後에 「靑春劇場」 五部作을 發表함으로써 文壇에 旋風을 일으키었고 또한 事變 後에는 「人生畫報」 三部作을 내놓아 더욱 名聲을 올린 바 있거니와 이번에 多年間 간직해 두었던 素材를 가지고 作家로서의 온갖 情熱을 이 作品에 기울이게 된 만큼 만천하 애독자의 절찬을 받으리라 자부합니다.³⁹⁾

作者 金來成 氏는 새삼 紹介할 必要도 없이 일찌기 「靑春劇場」 「人生畫報」 등으로 長篇小說 作家로서의 貫祿을 보여주었을 뿐 아

37) 「푸른날개」 연재예고, 『조선일보』 1954.3.25.

38) 「화관의 계절」 연재예고, 『한국일보』 1957.9.15.

39) 「에인」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4.9.22.

나라 本紙에 連載된 바 있는 「愛人」은 實로 旋風의 人氣를 獨占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作品은 一年有餘의 오랜 동안 構想을 가다듬은 끝에 發表되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佳作 「愛人」에 못지않은 絶讚을 받으리라 믿는 바입니다.⁴⁰⁾

박화성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쓰는 작품임이 강조된다. 193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여성작가였던 그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연재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本社에서는 (….) 多幸히도 解放後 十年間 草野에서 깊은 思索에 잠겨오던 女流作家 朴花城 女史의 欣然한 同意를 얻는 데 成功하였습니다. 女史가 不斷히 □□시켜오던 人間探究의 情熱이 무엇을 우리에게 提示해 줄 것인가 滿天下 讀者 여러분과 더불어 그 健筆을 빌며 여기 民族文化史上에 하나의 金子塔이 이루어지기를 念願하는 바입니다.⁴¹⁾

박화성은 『경향신문』 지상을 통해 “知識層과 젊은 世代의 絶讚을 받아오는 우리나라 女流作家 中 가장 오래된 분”⁴²⁾임이 내세워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여류작가로서 우리 문단의 제일인자로 손꼽히는 분”(장덕조),⁴³⁾ “力作을 연거푸 發表하여 그 ‘유익’한 作風과 더불어 우리 文壇에서 獨步的 境地를 開拓한 中堅作家로 널리 알려진 金光洲 氏”,⁴⁴⁾ “우리 文壇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金永壽 先生의 力作 「氷河」를

40) 「실낙원의 별」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6.5.16.

41) 「고개를 넘으면」 연재예고, 『한국일보』 1955.8.8. (□는 자료 판독 불가)

42) 「내일의 태양」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8.5.23.

43) 「원색지대」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8.10.29.

44) 「흑백」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9.4.17.

連載하고 (...) 여러 헛 동안 外地에 滯留하였다가 故國으로 돌아온 뒤의 첫 작품이 됩니다.”⁴⁵⁾ 등의 작가소개는 연재예고의 광고기사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명성이 좀 떨어진 신진작가의 경우에는 신문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줄 것임을 내세운다. 최인욱의 경우 “‘과연 누가 본지 독자를 위하여 가장 명랑하고 재미있으면서 깨끗하고도 섬세한 필치로 신문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깊이 생각하던 끝에, 우리는 우리나라 문단의 중견 최인욱(崔仁旭) 씨를 발견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면서, “최인욱 씨에 의하여 그려질 장편소설 「애정화원」(愛情花園)이야말로 우리나라 신문소설에 있어 완전히 새롭고, 더한층, 높은 위치를 마련하여 줄 것으로서 최대한의 환호를 받게 되리라고 믿”⁴⁶⁾는다는 연재예고가 나갔다.

이처럼 1950년대의 경우 신문사에서는 신문소설을 통한 독자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면은 급증하였지만 신문마다 그 뉴스의 내용에 차별성이 적음에 따라 각 신문사 측에서는 독자에게 그날그날 자사 신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유인책을 주로 소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新聞企業主는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新聞에 小説을 連載하는 만큼, 作者側에서도 新聞連載小説에 對할 때에는 暗黙裡에 그 要求條件을 承認하는 結果가 된다. 즉 企業主로 볼 때에는 連載小説 自體가 純粹한 讀者 奉仕이므로, 讀者가 읽어서 반드시 滋味있는 小説—다시 말하면 讀者가 連載小説로 因해서 그 新聞에 愛着을 가진 만한 小説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45) 「빙하」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9.7.17.

46) 「애정화원」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6.12.26.

成敗는 如何間에 于先 그만한 附帶 條件만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藝術的이거나 非藝術的이거나, 新聞社로서는 그런 點에는 關與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萬人이 읽어서 재미있는 小說, 그러므로 해서 讀者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 수 있는 小說이었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비록 成文化된 條件은 아니지만, 新聞小說에 따르는 하나의 不文律的 要求가 아닐가 한다. 新聞小說이 자칫하면 低俗한 通俗小說에 떨어지기 쉬운 危險性이 여기에 潛在한다. 그러한 危險性을 어떻게 避해가면서 모든 讀者들에게 最大公約數의 文學作品을 꾸며나가는가 하는 것이 新聞小說 執筆家의 苦心인 것이다.⁴⁷⁾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연재소설을 통하여 독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작가는 집필을 수락하는 것에서부터 그 요구 조건을 암묵적으로 승인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신문사 측에서는 훌륭한 예술작품보다는 독자들에게 구매력을 지닌 상품을 작가들에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작가들의 신문소설 집필 태도

신문소설에 대한 신문사의 의도적인 상업적 전략을 작가들이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무영이 「계절의 풍속도」 연재예고에서 언급한 다음 부분은 당시의 그런 분위기에 처한 신문사와 작가간의 역학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너무 작자 본의로만 고집하지 말고 신문사 생각도 좀 해 가며 쓰

47)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 문성당, 1957, 220-221쪽.

시오” 이렇게 웃으며 하는 편집자 앞에 나는 또 “신문사 생각만 마시고 작자 생각도 해 주시오” 하고 웃으며 협상이 되었다. 이쯤 되면 신문사도 작자도 별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⁴⁸⁾

이무영은 노골적으로 ‘협상’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신문소설을 연재하는 데 따른 신문사 측과 작가의 줄다리기를 양상을 말하고 있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신장하는 일과 연계하려는 신문사 측의 입장과 문학성을 견지하려는 작가들의 입장이 맞설 수밖에 없게 되지만, ‘신문사도 작자도 별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선에서 ‘협상’한다는 것이다. 결국 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⁴⁹⁾

작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무영은 「창」 연재에 앞서서도 “이런 제목(‘창’—인용자)이 독자의 구미에 닿길는지 모르겠다”거나 “본지(경향신문—인용자) 독자와는 낮이 설어 궁합이 맞으려는지가 걱정이다.(…) 독자가 따로이 보고자 하던 창이 있으면 귀뜸해 주어도 좋지 않은가.”⁵⁰⁾라고 말한 것은 독자를 상당히 의식하면서 집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김내성도 「실낙원의 별」 연재에 앞서 신문사로부터 모종의 부탁을 받았던 것 같다.

拙作「愛人」에 등장하는 林學準 教授는 ‘人生黃昏’에 대하여 自己哲學을 喪失하고 自己懷疑에 빠졌던 一瞬間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뜻하지 않은 事件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懷疑思想의 發芽가 育成을 보지 못하고 自然的으로 消滅해 버리고 말았다. 이 作品「失樂園의 별」은 林 教授의 그러한 自己懷疑에서 짙든 人生觀

48) 「계절의 풍속도」 연재예고, 『동아일보』 1958.10.19.

49)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앞의 책, 41-42쪽.

50) 「창」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5.8.26.

照를 최후의 一線까지 追求해 보고자 하는 意圖에서 붓을 들었다. 이 作品에서 林 教授는 이미 白髮을 머리에 인 七十 老齡으로서 登場하고 그의 外아들인 小說家도 이미 人生의 高개를 굴러내려 가기 시작한 中年紳士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失樂園의 별」은 新聞社나 讀者들이 要望하는 「愛人」의 續篇으로서 執筆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主題를 달리하는 單獨的인 作品으로서 製作되고 있다는 것을 附記하며 聲援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⁵¹⁾

행간을 읽어보면, 신문사에서 김내성의 「애인」이 인기리에 연재되었음에 힘입어 그 뒷이야기를 써 달라는 식으로 작가에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애인」의 영화화에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애인」은 홍성기 감독, 주증녀·서춘광·전택이 주연으로 신신영화사에서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얻었는데, 「실낙원의 별」 연재가 시작된 6월은 촬영이 마무리되는 시점⁵²⁾이었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애인」의 인기를 이어보고 싶었던 게 신문사의 바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 역시 그런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음이 위의 인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작가들은 신문사의 요구를 받으면서, 또한 독자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대중성과 문학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박영준의 「태풍지대」 연재예고는 신문소설을 집필하는 작가들이 신문사의 요구와 독자들의 반응 등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하는 점을 시사해 준다.

신문소설을 쓸 때마다 시험을 치는 것 같은 초조를 느끼게 된다.

51) 「실낙원의 별」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6.5.16.

52) 김종욱에 따르면 “총 제작일수 7개월, 제작비 5천만 원이 투자된 영화 「애인」은 50년대를 주름잡는 맘모스적 대작”이었다고 한다. 김종욱, 『한국영화 70년—대 표작 200선』, 영화진흥공사, 1989, 75쪽.

소설을 읽을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독자들의 얼굴이 무서운 그림자처럼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소한도 꾸지람을 하는 독자가 없도록 써야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나의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써야겠다. 이번 소설에서도 나는 이런 것을 머리에 두고 구상을 했다.⁵³⁾

신문소설 집필은 작가에게 수험생과 같은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다. 독자들의 얼굴이 무섭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면, 박영준은 독자의 반응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신문사 측의 눈치를 의식하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도 나의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써야겠다’면서 작품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박화성이 “대중을 상대로 쓰는 小説이다. 그러므로 대중과 함께 푸른 날개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고 싶은 것이 作者의 意圖라는 것을 밝히어 말하여 둔다.”⁵⁴⁾라며 신문소설이 ‘대중을 상대로’ ‘대중과 함께’ 쓰는 소설임을 의식한 것과 상통한다. 안수길은 대중성과 문학성의 조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많은 독자에게 읽어주소사 하는 것이므로 글이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고 같은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데에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나 서툰 글발이라 성과가 어떨지 오직 여러분의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⁵⁵⁾

53) 「태풍지대」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7.7.13.

54) 「푸른 날개」 연재예고, 『조선일보』 1954.3.25.

55) 「제의의 청춘」 연재예고, 『조선일보』 1957.9.15.

여기서 안수길의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흥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작가는 독자의 흥미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어서도 안 되겠다’고 함으로써 대중과 야합하여 독자의 취향만 따라갈 수는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안수길은 이런 입장 때문에 신문소설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속적인 이야기(素材)를 문학적으로 구상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재미있는 줄거리로 끌고 나가되, 그것이 품위와 더불어 작가의 강력하고 투철한 주제의식(主題意識)에 집중”됨으로써 “독자가 매일매일, 흥미를 가지고 읽는 동안에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를 작가와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표현(문장)과 구성이 세련되어 있어 문학적인 감흥에까지 끌리어 올라가게” 하는 작품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⁵⁶⁾

“요즘처럼 □욕과 사욕이 왕성한 시대에 소설마저 ‘에로티즘’의 작품이 어필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작가가 인기만을 위주하여 자기의 작품세계를 포기하고 남을 흉태낼 수는 없다. 사람마다 자기의 고유한 개성이 있듯이 작가에게도 그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폭로만이 소설의 능사가 아니겠기에 나도 썩은 ‘인간하수도’에서 보석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썩지 않은 돌이나마 찾아내려고 붓을 들기로 했다.”⁵⁷⁾는 박계주의 발언도 안수길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화성도 “비록 신문소설이 대다수의 독자와 신문운영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배념은 하면서도 건전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는 있을 것”⁵⁸⁾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56) 안수길, 「창작 여담—‘제이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 1958.8, 15쪽.

57) 「별아 내 가슴에」 연재예고 『서울신문』 1954.10.27. (□는 자료 판독 불가)

58) 박화성, 「신문소설과 그 위치—문학성과 통속성을 가리며」, 『서울신문』 1959.4.

그러나 예술성과 통속성을 동시에 추구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작가들은 신문사의 상업주의 경향에 적절히 타협해 나가게 되었다. 심지어는 작가들이 소설 내용에서 신문사를 홍보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김말봉의 「환희」(1958~1959)에서는 소설 연재지인 『조선일보』를 작품 내용 가운데에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신문사를 홍보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조선일보사에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를 구독 신청하는 장면(156회),⁵⁹⁾ 『조선일보』를 통해 신인배우 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장면(168회),⁶⁰⁾ 백모집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자 조선일보사까지 신문 구하러 가는 장면(169회)⁶¹⁾ 등이 그려져 있다. 반면에 다른 신문은 ‘××신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169회), 작가가 노골적으로 신문사의 상업주의 방침에 야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에 연재된 「실낙원의 별」(1956~1957)에서도 ‘K신문’이라 하여 연재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인공 <강석운>이 K신문에 소설을 연재한다든지, <강석운>이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고 <김옥영>이 가출하자 큰딸이 부모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K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송찬>이라는 K신문 기자가 등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59) 순영은 도시락을 받아놓고 이것저것 집어먹으며 수화기를 든다.“거기가 조선일보사예요? 영업부로 좀 바꿔주세요...영업부야요? 여기는 ‘아마존’(여인왕국)영화주식회사인데요. 신문 좀 배달시켜 주세요. 오늘부터 구독하겠어요. 주소요? 충무로 이가××번지 당구장 이층야요?”/사무실에 신문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을 살펴본 순영은, 이렇게 신문구독을 의뢰해 놓았다.(「환희」 156회)

60) “당선된 분의 이름은 조선일보 내일 아침 조건에 발표하겠습니다. 당선된 분은 내일 아침 열한시까지 ‘아마존’영화회사까지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합니다.”(「환희」 168회)

61) 이튿날 날이 새자 찬에는 신문을 기다렸다. 배달된 신문은 조선일보는 아니다.“백모님 조선일보 안 와요?”하고 물어본다.“아니다. 우리는 ××신문이다. 네 오빠가 ××신문사 기자가 아니냐?”따는 그럴 듯도 하다. 찬에는 거리로 뛰어나왔으나 신문팔이는 눈에 띄우지 않는다./찬에는 북미창동에서 테평로 조선일보사 앞까지 한달음질로 달려갔다.(「환희」 169회)

당시로서는 『국도신문』도 K신문일 수는 있지만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신문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K신문이라 하면 당연히 『경향신문』을 떠올렸을 것이다.⁶²⁾

작가들이 상업주의에 부응한 현상은 작품 속에서 통속성의 측면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작가들이 관능성·감상성·야만성 등 통속적 요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면서 독자의 관심을 모으려던 경향이 많아졌던 것이 1950년대 신문소설의 특징이었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관능성은 성 개방 풍조가 밀려든 당시 상황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거니와, 특히 미국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영화 속에 비춰진 에로틱한 장면들은 한국의 관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며, 신문소설에서는 그런 영상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성의 관능성을 표출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상성은 한국의 대중문학에서 전통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통속성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바,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도 독자를 자극하는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다. 1950년대 신문소설의 감상성은 주로 기구한 사랑, 모성애, 죄책감, 서러움 등에 따른 눈물로서, 전통적인 한과 눈물의 정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만성은 이전의 한국대중소설에서 두드러진 요소가 아니었으나 1950년대 들어서 특징적으로 부각된 통속성의 요소다. 이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것과 관련됨은 물론이요, 할리우드 액션영화나 서부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능성과 감상성은 1930년대에도 두드러진 요소였던 것이 이어진 것이며, 야만성은 1950년대에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속성의 심화현상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대중소설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⁶³⁾

62)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앞의 책, 41-44쪽

이렇듯 신문사의 상업적 전략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는 작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예술성을 견지하기는 하면서도 독자의 기호를 크게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5. 영화와의 교섭을 통해서 본 신문소설의 위상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은 영화와의 교섭 양상을 통해서도 점검해 볼 수 있다. 1950년대를 한국영화의 전성기 혹은 성장기로 말하는데 거기에는 신문소설이 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대중문화에서 신문소설이 절대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소설의 영화화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영남일보』에 180회 연재된 정비석의 「여성전선」의 영화화 시도가 그것으로, 연재 도중에 영화화가 결정되어 1952년 6월 25일자 신문에 주연배우 공모 광고가 실렸다. 제작에 김천운, 기획에 변종근, 각색·연출에 김소동, 연기지도에 이경선, 촬영에 강영화, 음악에 박시춘, 주제가작사에 장만영 등이 참여하였으나, 끝내 완성되지는 못하였다.⁶⁴⁾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문소설이 처음으로 영화화된 것은 박계주 원작의 「구원의 정화」가 아닌가 한다. 1954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향신문』에 179회 연재된 이 작품은 조선말 기독교신자들의 순교를 다룬

63)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드러나는 통속성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위의 책 189-205쪽을 참조 바람.

64) 정중화, 「한국영화 성장기의 토대에 대한 연구—동란기 한국영화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2, 28쪽. 「여성전선」은 1957년에 김기영 감독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다. 『한국영화 1919-1989 작품색인』, 영화진흥공사, 1990, 172쪽.

작품으로 윤인자·한은진·이용·서춘광 등이 출연하고 이만홍이 감독을 맡아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1956년 1월 21일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였다.⁶⁵⁾ 하지만 신문소설의 영화화가 위력을 발휘하며 뚜렷하게 인식된 것은 「자유부인」에 이르러서다. 「자유부인」 신문연재는 「구원의 정화」보다 2개월 먼저 시작되어 1개월 먼저 끝났지만, 영화화는 몇 개월 늦었다. 김정림·박암·이민·김동원 등의 출연에 한형모가 감독을 맡았고, 1956년 6월 9일 수도권극장에서 개봉되었는데, 45일간 상영되어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당대의 최대 히트작이 되었다.⁶⁶⁾ 「자유부인」을 기점으로 신문소설의 영화화 작업은 계속 이어졌고, 1950년대의 경우 대부분 관객동원에 성공했다.

당시 누구보다 신문소설을 영화화하는 데 앞장선 감독은 홍성기였다. 홍성기는 여성 멜로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원천은 당대의 신문소설이었다.⁶⁷⁾ 홍성기 감독은 자신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등 무척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열애」(1955)가 흥행에 참패하고, ‘국제 커뮤니티’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당하는 고초를 겪고 나자, 흥행작만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후 그는 몇 편의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당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던 신문소설에 기대어 안정적인 영화 제작을 추구하게 된다.⁶⁸⁾ 홍성기 감독이 영화로 제작한 1950년대 신문소설은 김내성의 「애인」·「실낙원의 별」(전·후편)·「청춘극장」,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대지의 성좌」, 홍성유의 「비극은 없다」 등이다. 홍성기는 「여성전선」(1957)의 각색도 담당하였다.⁶⁹⁾

65) 열화당 영상자료실 위음,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 열화당, 1998, 99쪽 참조.

66) 정중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2, 열화당, 1997, 16-17쪽 참조.

67) 변재란, 「1950년대의 감독 연구—홍성기 감독의 신문소설의 영화화 경향을 중심으로」, 『영화연구』20, 한국영화학회, 2002, 185쪽.

68) 위의 글, 187쪽.

작가를 기준으로 보면 정비석의 신문소설이 당시에 가장 많이 영화화되었다. 「자유부인」(속편은 김화랑 감독)을 비롯해서 「낭만열차」(박상호 감독)·「슬픈 목가」(김기영 감독)·「유혹의 강」(유두연 감독) 등의 작품이 당대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김내성·박계주·홍성유의 작품들은 홍성기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고, 김말봉의 「생명」(이강천 감독)·「푸른 날개」(전택이 감독),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이용민 감독), 임옥인의 「젊은 설계도」(유두연 감독) 등 많은 신문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한국영화는 사극과 멜로드라마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 1958년을 정점으로 제작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신문소설 영화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제작편수에 비해 시나리오가 부족하게 되자, 외국 원작을 번안·각색하고, 소설, 라디오드라마, 신문소설이 집중적으로 영화로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문소설의 영화화는 영화제작 편수가 많아진 탓에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부족해서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고, 원작의 인기를 등에 업고 흥행으로 이어가려는 의도이기도 했다.⁷⁰⁾

이처럼 1950년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영화가 신문소설에 빚을 지고 있었다. 영화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미비점이 많으면서도 대중의 영화에 대한 요구가 컸던 당시로서는, 용이한 영화제작을 위해 이미 확인된 소설관객의 요구에 맞게 영화를 제작해 내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⁷¹⁾ 영화화되었던 신문소설의 유명세는 이미 영화를 보러올 관객들에게 사전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설로서 대중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므로 그 대중적 흡인력을 쉽게 영화로 이전시킬 수 있었다.⁷²⁾

69) 위의 글, 189쪽.

70) 박진호, 「195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26쪽.

71) 변재란, 앞의 글, 205쪽.

72) 이길성, 「1950년대 후반기 신문소설의 각색과 멜로드라마의 분화」, 『영화연구』30,

다음은 신문소설과 영화의 교섭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비석의 『유혹의 강』이 『서울신문』에 연재되는 가운데 유두연 감독에 의해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신문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작가에게 촬영장을 방문케 하고서 그것을 기사화하였던 것이다.

외로움에 겨워 카나리아의 기저귀는 소리에든 가슴을 떠는 전쟁미망인 최선에 여사가 ‘팔명회’에 처음 참가하는 날이다. 상봉각 2층 ‘강귀순’의 방에는 가지가지의 운명을 지닌 미망인들이 여성만이 아는 비밀의 장막을 드리우고 대화를 주고받는다. 본지 연재중인 ‘유혹의 강’의 세트 촬영이 중구 조영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첫 스냅썬. 마침 원작자 정비석 씨도 유 감독 곁에서 스크린에 아로새겨질 이야기의 귀추에 무척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촬영에 앞서 리허설 타임을 가졌다. 콘티를 들은 유 감독은 흥분한 어조로 강귀순의 비극, 이경혜의 허무, 김진옥의 축복을 통해서 히로인 최선애의 인생 해탈을 그려 보는 것이라곤 한마당 설명. ‘유혹의 강’에 처음으로 발을 대면 최선애는 어떻게 될는지? 독자는 본지 연재 중인 소설의 진전과 더불어 이 영화의 완성을 기대해 봐야겠다.⁷³⁾

신문과 영화가 상호 홍보되는 이점을 가진 기사였다.⁷⁴⁾ 근래 들어 ‘미리 보는 영화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연재되면서 영화 홍보의 수단이 된 신문소설도 있었지만,⁷⁵⁾ 당시로서는 영화가 신문소설에 기대던 측면이 더

한국영화학회, 2006, 211쪽.

73) 「팔명회에서의 첫 파티—정씨 ‘유혹의 강’ 세트 탐방」, 『서울신문』 1958. 9. 10.

74) 윤진화, 「1950년대 후반기 한국영화산업형성의 생성메커니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2, 62쪽.

75) 「연애의 목적」의 경우 『경향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다가 중요한 대목을 남겨둔 상태에서 영화를 개봉하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그 마케팅 전략은 소설보다는 영화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

켰다고 볼 수 있다.

신문소설의 영화화는 한국영화를 무시하던 지식층을 끌어오는 데에도 일조했다. 많은 신문소설들이 성공적으로 영화화됨으로써 한국영화는 더욱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영화가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이렇게 신문소설과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소설을 연재 당시에 놓쳤던 사람이든 읽은 사람이든 모두 소설의 재미가 시각화된 현장과 만나고 싶어 했고, 그것이 관객동원의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이다.⁷⁶⁾ 이렇게 영화와의 관계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만큼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은 자못 막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6.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하였듯이, 1950년대 신문소설의 경우 신문의 상업주의 경향과 작가들의 대응, 영화와의 교섭 등에 대해 탐색해 보면 매우 유의미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1950년대는 신문매체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업주의를 노골화한 시기였는데, 신문사에서는 신문소설을 통해 신문판매고를 신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인기작가의 유치, 연재예고와 같은 광고기사의 적극적 활용, 비인기 소설의 퇴출(연재 중단) 등의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작가들은 신문사의 상업주의와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에도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대개의 경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노골적

76) 변재란, 「한국영화사에서 여성관객의 영화관람경험 연구—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0, 165쪽.

으로 소설이 게재되는 신문을 홍보하기도 하였고, 관능성·감상성·야만성 등의 통속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신문소설이 한국영화와의 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뤘던 1950년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던 멜로드라마는 신문소설을 원천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던바, 이는 신문소설이 한국영화의 대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된다.

이처럼 1950년대의 신문소설은 상업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 발표된 소설들보다도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고, 영화 등의 대중예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1950년대 신문소설은 인기도와 영향력에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회소설이기도 하다.⁷⁷⁾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학사 혹은 예술사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은 굳건한 위상을 부여받아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1950년대에 대한 기술을 보면 신문소설의 위상은 거의 무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온전한 문학사나 예술사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을 논하면서 당시 대중소설에서 신문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은 이 글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지를 비롯한 대중잡지에 발표된 소설의 영향력 등과 대비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연애소설이 아닌 다른 장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77) 1950년대 신문소설이 당시 세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 김동윤,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리토피아, 2004.
-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1-191쪽.
-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 소설」, 『현대소설연구』29, 현대소설학회, 2006, 9-29쪽.
- 김영희, 「제1공화국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 6-331쪽.
- 김중옥, 『한국영화 70년—대표작 200선』, 영화진흥공사, 1989.
- 김팔봉, 「‘서울신문’과 집필거부와 나」, 『신세계』 1957. 1, 139-145쪽.
- 레이몬드 윌리엄스(박만준 역), 『문학과 문화이론』, 경문사, 2003
- 박진호, 「195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1-74쪽.
-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1-104쪽.
- 박화성, 「신문소설과 그 위치—문학성과 통속성을 가리며」, 『서울신문』 1959. 4. 15.
- 백철, 「농민문학을 제안—민족문학의 제재를 넓힌다?」, 『자유문학』 1956. 7, 225-235쪽.
- 변재란, 「한국영화사에서 여성관객의 영화관람경험 연구—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0, 1-238쪽.
- 변재란, 「1950년대의 감독 연구—홍성기 감독의 신문소설의 영화화 경향을 중심으로」, 『영화연구』20, 한국영화학회, 2002, 184-209쪽.
- 안수길, 「창작 여담—‘제이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 1958. 8, 15-17쪽.
- 열화당 영상자료실 엮음,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 열화당, 1998.
- 염상섭, 「소설과 현실」, 『한국일보』 1954. 6. 14.
- 염상섭, 『염상섭전집』12, 민음사, 1987.
- 원우현, 「한국언론제도의 구조에 관한 서술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14호, 한국언론학회, 1981, 71-104쪽.

- 윤진화, 「1950년대 후반기 한국영화산업형성의 생성메커니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2, 1-135쪽.
- 이길성, 「1950년대 후반기 신문소설의 각색과 멜로드라마의 분화」, 『영화연구』 30, 한국영화학회, 2006, 5-221쪽.
- 이희승 외, 「문학과 신문문화면(좌담)」, 『자유문학』 1957. 9, 80-95쪽.
-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128-185쪽.
- 임성래 외 6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 임성래, 『완관 영웅소설의 대중성』, 소명출판, 2007.
- 정비석, 『소설작법』, 문성당, 1957.
- 정중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2, 열화당, 1997.
- 정중화, 「한국영화 성장기의 토대에 대한 연구—동란기 한국영화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2, 1-127쪽.
-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1-118쪽.
- 최정호 외 2인, 『메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1990.
- 『한국영화 1919~1989 작품색인』, 영화진흥공사, 1990.
- 한명환 · 김일영 · 남금희 · 안미영, 「해방 이후 대구 · 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45-370쪽.
- 기타 신문소설 연재예고 자료.



The Status of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Kim Dong-Yun

It is meaningful to explore commercial trends of newspapers, writers' responses, and connection with movies when studying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In the 1950s, newspapers had an enormous social influence, and their commercialism became conspicuous. In order to increase sale figures, newspaper companies adopted strategies of attracting brand-name authors, taking advantage of advertorials, and eliminating unpopular novels. Writers sensitively responded to readers' responses while compromising with the commercialism. Most of them showed efforts to pursue artistry and popularity simultaneously, but some authors openly promoted newspapers where their novels were serialized, or brought into relief vulgar factors such as sensuality, sentimentality, and brutality. In additio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newspaper novels played a leading role in having connection with films. In the 1950s, the heyday of Korean movies, melodramas were often the source of newspaper novels. This is the evidence to prove the novels' contribution to helping Korean movies securing a popular base. Like this,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were quite a splash with the commercialism, and had quite an influence on popular arts. Moreover,

it is safe to say that the 1950's newspaper novels has a solid statu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or art in that they are social novels that reflects then social conditions.

Key Words

in the 1950s, newspaper novel, commercialism, advertorial, author, connection with movies

* 위 논문은 2007년 4월 23일에 투고되어 2007년 4월 28일에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2007년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